

입시탐구 영역(오르비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민들에게
수능 끝나고 슬슬 등장할 글들이 있다. 원서철에 누가봐도 수험생이었던 사람이 쓰는 글은 어쩔 수가 없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동질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웃어넘기겠지만 컨설팅 진행하다보면 올해 ~라던데등의 실제 믿는 분들이 존재한다. 적어도 수능성적이 나와야 뭐라도 분석을 하고, 나열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수 있고, 그 전엔 다 추측성 글이다.

- ① 수능이 끝나고 3주정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원서철 영역이다.
- ② 곧 다가올 원서철 오르비 글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 ③ 12월 초중순 이전 진학사와 고속 등 각종 오픈프로그램도 의미 없다.
- ④ 대학서열은 매년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순서대로 비슷하게 마무리 된다.
- ⑤ 12월 초중순 전에 미리 휩쓸일 필요가 없기에 수능 성적 발표 전엔 오르비의 글들을 가볍게 웃어넘기면 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겨하는 건장한 남성이 운동 루틴에 핑크아령을 드는 세트를 넣었다고 생각해보라. 그에게는 핑크아령은 10번 들어올리든 20번 들어올리든 남은 체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훨씬 무거운 덤벨, 바벨로 운동을 해야 횟수를 반복할수록 힘이 들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수능 시험지에도 이 핑크아령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있다.

- ① 수학 등급컷을 현재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② 거저주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일부 문항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풀면서 아무런 감흥(酣興)이 없다.
- ④ 대부분의 오르비언은 맞힌 문제들을 파악하고 각각에 배점을 곱하여 더한 값으로 원점수를 계산한다.
- ⑤ 각 등급대별 학생들이 틀릴만한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난이도와 등급컷을 생각하고 계산하곤 한다.

3.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올해 입시는 기회(機會)다. 과탐 핵 불로 과탐 하나 조진 사람이 매우 많아 평균 백분위가 하락한다. 의대나 메디컬에 재학중인 표본이 유입될건데, 이는 정시 지원조차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각 과목 상위표본들은 입시에선 없는 사람이다.

을: 이번 수능은 그 어떤 수능보다도 과학탐구의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안 나온 학생들이 많다. 물화에서 실수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지마저 커트라인이 정상적으로 잡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채점상 표본(標本)도 그렇고 분포도 국어/수학에 비해서 백분위가 많이 낮다.

- ① 갑: 지역인재전형은 올해 많이 널널해 질 것이다.
- ② 갑: 작년보다 영어가 쉬워 입결이 크게 떨어질 지는 알 수 없다.
- ③ 을: 올해 과학탐구 과목의 점수가 안 나왔다면 그건 시험을 못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④ 을: 지역인재가 아닌 백분위 대학은 평소와 같은 입결을 유지한다.
- ⑤ 갑, 을: 증원이 대부분 지방대 위주로 이루어져서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4.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너무 메디컬만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살면서 주변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 애들이 더 행복(幸福)해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잘 생각해보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건 어떤지 권하고 싶다.

을: 너무 메디컬만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메디컬 가려고 목숨 걸고 하는 것도 10수까지가 한계다. 그 이후엔 다른 세상이 있단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른 세계는 이세계(異世界)이다.

< 보기 >

- ㄱ. 갑: 진짜 하고 싶은 걸 모르면 나중에 방황(彷徨)하는 경우가 생긴다.
- ㄴ. 갑: 자기가 메디컬 성적 평소에 안 나와서 기대도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 대박치는 경우가 있으니 현실(現實)의 벽을 높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ㄷ. 을: 10수 이후의 세계(世界)에서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
- ㄹ. 갑, 을: 메디컬(病院)이 하고 싶으면 노력해서 갈 수 있으면 가면 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